

에너지市場의 새로운 秩序

李 會 晟

(韓國動力資源研究所
政策担当先任部長·經博)



2次 石油危機로부터 5년도 안된 現在 우리는 또 하나의 石油危機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生産者나 消費者의 대응태세로 보아 이러한 위기가 쉽사리 終熄 될것 같지 않다.

예를 들어 아직도 OPEC의 一部 會員國은 배럴당 28달러 수준이 油價維持를 원하고 있다고 傳해진다. 이것이 事實이라면 그들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石油市場의 不安定 要因을 명백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一部 消費國들도 現在の 市況을 너무 安易하게 보고 있다. 그들은 最近의 油價下落은 自由市場 原理의 결과로서 낮은 油價는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正當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또한 에너지節約이 世界經濟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므로 低油價로 인해 經濟가 과거의 에너지 浪費의인 시대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後者의 見解가 다소 事實이라 하더라도 이는 消費者의 立場에서 본 지나친 樂觀論인 것

같다. 이미 石油에서 他에너지로의 轉換을 주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잠재되어 있는 石油需要를 자극하는 위험한 조짐도 하나, 둘 일고 있다.

商品價格의 큰 變動은 生産者나 消費者 모두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또 그것이 에너지資源의 경우에는 世界經濟에 크나큰 害가 된다는 것은 다시

強調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過去 1,2次 石油危機에서 얻은 教訓을 이용하여 危機와 波動의 연속이 아닌 새로운 秩序의 에너지市場 기반을 구축할 적절한 時期라고 믿는다. 新秩序는 生産者, 消費者 모두가 에너지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現實的인 視覚과 妥協으로부터 이루어져야만 한다. 또 波動보다는 安定이, 對立보다는 妥協이 강조되어야 한다. 새로운 질서에서는 近視眼的인 결정의 독주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보다 더 合理的인 經濟環境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資源交易에서 명백한 不正性을 수정할 時期도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자원수출자들은 그들의 의지대로 資源市場을 독점할 고유한 권한을 갖고 있고 消費者들은 이에 順應해야 한다는 意識에서 하루빨리 탈피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LNG 輸出價格 구조는 새롭게 조정될 必要가 있다. 같은 熱量下에서 LNG는 石油보다 優位의 에너지로 인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LNG 價格은 油價에 프리미엄이 붙어 形成되고 있다. 그러나 公正한 價格을 算出하기 위해서는 LNG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다른 점들도 石油와 비교되어야 할 것이다. 즉, 港口設備를 위한 投資費, 輸送費 등 연료 그 자체 以外에 利用을 위해 投入되는 여러가지 要素들이 비교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現在의 需要와 世界埋藏量 与件이 검토되어야 한다. 높은 LNG 價格은 LNG 市場의 限界性 때문에 결국 消費者보다는 生産者에게 더 큰 損失을 입히게 될 것이다.

LNG 契約의 Take-or-Pay 條項도 역시 不正한 去來의 한 例이다. 이 조항이 生産者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消費者의 보호를 위해 이에 상응한 조치도 정당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不正한 契約은 LNG 交易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일부의 尿酸과 石炭契約에서는 下限價格을 제시하는 規定이 있다. 이것 역시 예상하지 못한 價格下落에 대비해 生産者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예상하지 못한 價格上昇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上限價格이 있어야 할 것이다.

生産者와 消費者의 이익이 똑같이 보호될 때 長期供給契約은 公正한 것이며 諸般狀況이 변화할 때에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現 油價下落은 消費者들로 하여금 世界石油市場에 대한 不安感을 그만 잊어버리도록 副作用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두차례의 石油危機에서 얻은 값비싼 教訓을 저버려서는 안된다. 만약 그 당시 消費者들의 代價가 公고했다면 과거 10여년의 經濟歷史는 완

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우리는 油價가 3倍로 올라가는데는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油價가 내려가기까지는 10年以上을 기다려야 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油價가 下落하는 이 시점에서 短期的으로 波動하는 에너지市場을 진정시키고 均衡을 이루게 하는 힘이 필요하며 이러한 點에서 消費國政府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石油의 備蓄과 에너지 研究 및 開發은 정부의 支援이 필요한 분야이다. 나아가서 上記 두 분야는 石油輸入國 정부들이 政策의 目標설정과 그 實行을 行함에 있어 서로가 協力한다면 效率性이 倍加될 수 있을 것이다.

油價下落時의 석유비축은 인기있는 政策이 되지는 못한다. 또한 消費國들간에 協助없이 개별적으로 비축하는 것은 그 效果를 減少시키게 된다.

보다 더 效果的인 에너지 研究를 위해서는 兩國間의 協力과 같은 좁은 개념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多國的인 研究協力 體制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人力, 制度, 財政 等の 면에서 多國間에 적절한 配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消費國과 生産國의 協力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長期契約으로의 復歸와 價格安定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長期契約이 回生한다는 것은 곧 생산자나 소비자 相對方의 희생으로 利得을 취하지 않고, 價格은 需給이 長期的으로 均衡을 이루는 방향에서 결정되는 秩序 있는 市場으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요약하면, 長期契約은 시장이 원활하고 效率的으로 운영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점은 특히 長期的인 移行이 요구되는 資源交易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